

갑천면(甲川面)

[위 치]

갑천면은 동쪽으로 청일면과 둔내면, 서쪽으로 공근면, 남쪽으로 우천면과 횡성읍, 북쪽으로 홍천군 동면과 각각 접해있다.

[연 혁]

옛날 진한(辰韓)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泰岐王)이 신라 시조 박혁거세에게 쫓기어 태기산(泰岐山)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꾀하여 군사를 훈련하다가, 태기왕이 갑옷을 냇물에 씻었다 하는 갑천(甲川)의 이름을 따서 갑천면(甲川面)이라 하여 갑천, 고시, 구방, 매일, 부동, 상대, 신대, 유평, 중금, 포동, 하대, 화전 등 12개 리를 관할하다가, 1973년 행정관할구역의 재조정으로 청일면의 울동리, 삼거리, 전촌리, 추동리, 대관대리, 병지방리가 갑천면에 각각 편입되고, 갑천면 유평리, 갑천리, 고시리, 신대리의 일부가 청일면에 편입되었다. 2000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동리가 삼거리로 편입되었다.

구방리(舊坊里)

횡성의 구읍이 화전리(花田里)에 있을 때, 이 곳이 한 읍내가 되므로 구방내(舊坊內)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다래울, 새말, 한치를 병합하여 구방내리라 하다가, 1916년에 줄여서 구방리라 하였다.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대부분 마을이 물에 잠기고, 개골, 은곡 일부와 새말과 한치가 있다.

[구방1리]

개골 [마을] 망향의 동산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을이 크다고 해서 ‘대촌’이라고도 한다.

개골고개 [고개] 개골에서 중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남대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남쪽으로 난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말 [마을] 구방1리 2반에 속했던 마을로, 예전에 마을에 다래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다래울이라고도 한다.

다래울 [마을] → 다래말

당봉 [산] 개골 방향의 동산 입구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촌(大村) [마을] → 개골

던진바우 [바우] 개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장수가 있었는데 힘이 좋아서 이 바위를 던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고을 원이 술이 취해 이 곳에서 쉬는데, 불이 났다고 한다. 그 때 따라온 개가 꼬리에 물을 묻혀 불을 끄었다고 한다.

던진바우고개 [고개] 은곡에서 다래말로 넘어가던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던진바우 옆에 있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모재기고개’라고도 한다.

동대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쪽으로 난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말밭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에 말 밭 자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재기 [마을] 구방1리 1반에 속했던 마을로, 마을이 모가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은곡’이라고도 한다.

모재기고개 [고개] → 던진바우고개

망봉산 [산] 개골 방향의 동산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양짓말 [마을] 구방1리 3반에 속했던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은곡 [마을] 모재기를 달리 부르는 마을명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응달말 [마을] 구방1리 3반에 속했던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응달말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응달말 일부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방2리]

골막 [골] 한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짜기가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의 물은 한치저수지로 모인다.

덕산골 [골] 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랭이골 [골] 웃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롱골 [골] 아랫말 미아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현재 1가구가 있다.

미아골 [골] 용둔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산지당골 [골] 서낭배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말 [마을] 한치 뒤에 있는 마을로, 마을 형성이 다른 마을보다 늦게 된 것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신촌'이라고도 한다.

서낭당골 [골] 한치저수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의 물은 한치저수지로 모인다.

서낭배기 [터] 숯터골 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김재 [고개] → 정금재

숯터골 [골] 좁은동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숯을 많이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지골 [골] 숯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촌(新村) [마을] → 새말

아랫말 [마을] 새말의 경노당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랫새말'이라고도 한다. 구방2리 2반에 속한다.

아랫새말 [마을] → 아랫말

앞고개 [고개] 웃말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천면 용둔리와 통한다.

왕바우 [바위] 아랫말 초입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둔골 [마을] 새말 경로당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천면 용둔리와 통하는 골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6가구가 살고 있다.

움무골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로 피난을 가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새말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웃새말이라고도 한다. 구방2리 1반에 속한다.

웃새말 [마을] → 웃말

작은골 [마을] 도룡골 밑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작은 골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3가구가 있다.

재자고개 [고개] 한치에서 새말과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재자골 [골] 한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골의 물은 한치저수지 앞으로 흐른다.

정금리재 [고개] 새말 웃말에서 정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정금리에서는 새말재라고 한다. ‘쇠깎재’라고도 한다.

죽음동(足陰洞) [마을] → 좁은동

좁은동 [마을] 구방1리에서 새말로 올라가며 왼쪽으로 첫 번째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좁은 골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1가구가 있다. 이 골에 있는 바위에 ‘죽음(足陰)’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죽음동’이라고도 한다.

지누골 [골] 골막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지누골과 큰지누골이 있다. 이 골의 물은 한치저수지로 모인다.

호도골 [골] 웃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홍수골 [골] 한치저수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홍수풀이’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수풀이’는 누가 물에 빠져서 죽거나 하면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치 [마을] 중금리에서 한치고개를 가면서 좌측으로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치고개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방2리 3반에 속한다. 예전에 한치 마을을 놓고 해마다 구방리 사람과 중금리 사람들이 줄다리를 해서 이기는 마을에 속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일제 때 세부측량을 하던 해에 구방리에 속했던 관계로 지금까지 구방리에 속한다고 한다.

한치저수지 [저수지] 한치에 있는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도상에는 중금저수지로 표기되었으나, 중금리, 구방리 사람들은 한치저수지라고 한다.

대관대리(大官垔里)

본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1973년 갑천면에 편입되었다. 조선 중엽에 심 판서(沈判書)가 살았다 하여 대관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배골, 수내들, 사기막, 석동거리를 병합하여 대관대리라 하였다.

갈매나무골 [골] 굴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감투바우 [바위] 삼배골 개굴바우 앞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 형상이 감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아소 [소] 대관대리와 추동리 경계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이 깊고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개굴 [굴] 삼배골에 있는 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개가 평창군 대화굴에서 이 굴로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나리굴’, ‘구출굴’, ‘청일굴’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평창군 대화에서 대관대리로 관통하는 큰 굴이 있었는데, 이 굴로 드나드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개는 눈 빛같이 희고, 두 눈은 파리같이 붉고, 턱은 뾰족하며 네 다리는 짧은데 비하여 허리는 유난히 길었다고 한다. 이 개는 어떤 때는 평창 대화에 나타나고, 어떤 때는 대관대리 바위굴에 나타나므로 이 개를 귀신개라 하였다. 이 귀신개가 두 곳에 자주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굴이 관통되었다고 믿게 되었는데, 개가 나온 바위라 하여 개굴바위라고 하였으며, 이 지역을 개가 나온 곳이라 하여 개나리라 불렀다고 한다.

개나리 [마을] 대관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삼배골에 있는 굴에서 개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태기왕이 어답산에서 이곳을 볼 때쯤 멀리 공근 먼 수백리는 해가 비치는 물의 모습이 흰빛이 완연하여 수백리(水白里)라 하였고, 멀리 대관대리로부터 일기가 점차 개인 곳 즉, 갠날이란 뜻으로 청일(晴日)이라 했다고 한다.

개나리굴 [굴] → 개굴

거문피 [골] 예전 갑천면 추동출장소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항상 어두컴컴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검은 바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정골’이라고도 한다.

검정골 [골] → 거문피

고사리골 [골] 세목다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출굴(狗出窟) [굴] → 개굴

굴바우굴 [굴] 물위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바위에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꽃삽머리 [산] 삼베골 입구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면 많은 꽃들이 피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 [골] 삼베골 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다래골과 아랫다래골이 있다.

도둑골 [골] 삼베골을 접어들며 우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도둑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장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앞뜰 [뜰] 장거리 앞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는 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넘이수로터널 [터널] → 윗용너미

물위고개 [고개] 수내들 앞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 위에 고개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푸레배기 [터] 수내뜰 위에 있는 평지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엔 이곳에 물푸레나무가 많아서 물푸레골이라 하였다. 현재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물푸레나무는 없어지고 논으로 변해 있다.

방학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옥동리 방학골과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보리밭골 [골] 장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보리를 많이 심어 붙여진 이름이다. 3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땅속에 묻혀 있던 급부처 두 개가 출토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 불상을 발견하였던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고물장사에게 팔았다고 한다.

보숲산 [산] 복화산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예전에 하천의 물을 활용하고자 이 산의 소나무로 솔가지 취입보를 막는 나무를 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복화산 [산] 거문피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과 여름에는 복사꽃과 산벚꽃이 유난히도 많이 피어 붙여진 이름이다. ‘보숲산’이라고도 한다.

분토골 [골] 대관대리 마을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짧다고 한다.

빨래터 [터] 장거리 앞개울에 위치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터가 있다. 이 물은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해서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이용하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의 지하수 식수가 고갈되어도 이곳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사기막 [마을] 대관대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사기를 구웠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그막'이라고 발음한다.

삼배골 [마을] 장거리 뒤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근면 삼배리와 접해 있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상들배기 [터] 사기막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서 나는 화강암으로 맷돌이나 묘비석 등을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말 [마을] 장거리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에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정둔지 [터] 대관대리 2반에 속하는 터로, 예전에 서당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석동거리 [마을] 원대를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예전에 3천 평이 되는 밭 세 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목이 [터] 궁천리에서 사기막으로 들어가는 길과 다리를 건너 대관대리 본부락으로 들어가는 세 길목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세보들 [들] 세목이 주위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수내뜰 [마을] 장거리 앞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마을에는 논이 많으나 예전에 가뭄이 심했던 까닭에 수로 터널을 개설하여 논에 물을 대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수로 사업을 추진한 時雨 郭仁鎔의 호를 따서 '시우평'이라고도 한다.

시우평(時雨坪) [마을] → 수내들

심난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서 산삼이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갈바위 [바위] 사기막 황성담 밑 개울 건너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고개 [고개] 삼배골에서 고사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에 있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개나리 [마을] 대관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나리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용너미 [고개] → 용너미

용너미 [고개] 황성담 가배수로 터널이 있는 곳의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이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용너미'라고도 한다.

웃고개 [고개] 삼배골에서 고사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에 있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대(院垔) [마을] 석동거리를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조선시대 때 홍안원(弘安院)이라는 원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윗용너미 [고개] 예전에 수리시설이 부족할 때, 인력으로 굴을 뚫어 수로를 개설하였는데, 용너미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넘이수로터널’이라고도 한다.

장거리 [마을] 대관대리 중심이 되는 마을로, 예전에 5일장이 서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장터’라고도 한다.

장터 [마을] → 장거리

쥐바리골 [골] 수내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진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횡성읍 옥동리, 한치고개와 경계를 이룬다.

진골 [골] 삼배골을 접어 들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일굴(晴日窟) [굴] → 개굴

평풍바우 [바위] 삼배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병풍을 펼쳐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리(梅日里)

갑천면 사무소가 위치한 곳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릿들, 잔골을 병합하여 매일리라 하였다.

[매일1리]

구릿들 [마을] 마을이 큰길가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장터’라고도 한다.

구릿들 [마을] 갑천면 사무소 앞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이가 지나간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평’, ‘상동평’이라고도 한다.

도수장골 [골] 절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제 때 이 골에서 소를 잡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방 때까지 이 곳에서 소를 잡았다고 한다.

동평(銅坪) [마을] → 구릿들

동평보 [보] 마을에 있는 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평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장보’, ‘매일보’라고도 한다.

뒷말 [마을] 매일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본부락에서 볼 때 뒤에 위치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떼수 [골] 뒷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보 [보] → 동평보

보범산 [산] 갑천면 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사산’이라고도 한다.

상동평(上銅坪) [마을] → 구릿들

신사산 [산] 보범산을 달리 부르던 것으로, 일제 때 신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장보 [보] → 동평보

작은구릿봉 [산] 포동2리에 있는 구릿봉과 비교하여 낮은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터 [마을] 거릿들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장이 서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용성사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수장골’이라고도 한다.

[매일2리]

검두재 [고개] 매일2리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검두(상대리, 하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일재’, ‘빨딱고개’라고도 한다.

검두골 [마을] 검두골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로, 검두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두골저수지 [저수지] 검두골에 있는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1960년대에 만들었다. ‘매일저수지’라고도 한다.

공동산 [산]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매일리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방골 [골] 돌장자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돌장자골 [골] 매일2리에서 검두고개를 올라가며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돌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장자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새끼친골 [골] 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돼지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빨딱고개 [고개] 검두재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고개가 급경사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1970년대 초 새마을사업을 할 때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마일 [마을] 매일2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매일’이라고도 한다.

마일고개 [고개] 검두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리와 하대리 마을 사람들은 마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저수지 [저수지] → 검두골저수지

쌈골 [골] 매일2리에서 검두재를 가며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쌈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쌈골과 웃쌈골이 있다.

설통바우골 [골] 웃소구니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설치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동골 [골] 찰돌골 위에 있는 골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깊다고 한다.

아랫소구니 [골]-청일면 유평리 소구니와 통하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매일 [마을] 마일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매일1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소구니 [골] 아랫소구니 위에 있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고개 [고개] 청일면 유평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에 물이 많아서 질퍽거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찰돌골 [골] 돼지새끼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찰돌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섬동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3리]

노장골 [골] 서낭대를 가며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숲고개 [고개] 우천면 정금리 대숲과 통하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나무가 많다고 한다.

서낭대 [터] 서낭당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곡(細谷) [마을] → 잔골

시토골 [골]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약물바우 [바위] 갑천초등학교 앞에 있던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약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나무골 [골] 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잔골 [마을] 매일3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골이 좁고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서낭대 위에 있는 산 정상이 술잔처럼 둥그렇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골’, ‘세곡’이라고도 한다.

장골 [마을] → 잔골

경지배미 [들] 경지정리하기 전에 큰 논이 마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산 [산] 공동산과 그 산에 접해 있는 개인소유의 산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의 중심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리(兵之坊里)

본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1973년 갑천면에 편입되었다. 진한(辰韓) 태기왕(泰岐王)이 신라군에게 쫓겨 어답산(御踏山)에 피난할 때, 북방 방어를 위하여 병사를 모아 방비하던 곳이라 하여, 병지방리(兵之坊里)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소학동, 샘골, 공세동, 장승골, 셋말, 홍문터, 직곡, 당거리, 산대리를 병합하여 병지방리라 하였다.

[병지방1리]

가는골 [골] 장승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가는골이 있다.

가래나무골 [골] 장승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간촌(間村) [마을] → 셋말

강길어골 [골] 정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강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갱길어골’이라고도 한다.

강길어골 [골] → 강길어골

곤드레골 [골] 수리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곤드레 나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곱들재 [고개] 샘골과 청일면 봉명리의 경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곱돌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서울 [마을] ①예전에 공세창(貢稅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이 마을로 공씨와 서씨가 피난을 왔다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태기왕이 이곳에서 머무를 때 세금을 거두어들인 지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깥 공서울과 안공서울이 있다. ‘공세울’이라고도 한다.

공세울 [마을] → 공서울

늘목 [마을] 소학동 위에 있는 마을로, 홍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어을목’이라고도 한다.

다라골 [마을] 다락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달이 뜰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하동’이라고도 한다.

다락골 [마을] 병지방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다른 마을에서 볼 때 높은 곳에 마을이 위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라골’, ‘월하동’이라고도 한다. 갑천면 울동리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해 있다.

달밭골 [골] 새터간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돈너미 [골] 새터간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돼지가 잘 다니는 길목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 [골] 완상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떡갈매기 [골] 다라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막터골 [골] → 망태덕골

말등바우 [바위] 황장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마치 말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리와 봉명리의 경계에 있다.

망태덕골 [골] 안공서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막터골’이라고도 한다.

밤나무골 [골] 사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밤나무골과 작은밤나무골이 있다.

밤나무둔지 [터] 은전머리 밑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재 [고개] 설바우골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갑천면 울동리와 통하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병무산 [산] 안공서울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태기왕을 추격

하던 적병들이 산세를 보니 태기왕 병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산위까지 추격하였지만 병사들이 없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兵無山). ②태기왕의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산 위에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兵舞山). ③태기왕의 병사들이 이 산에서 무술을 연마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兵武山).

병문안 [터] 신선바우 밑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 태기왕이 이 곳 병지방에서 병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을 때 병사들이 문안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때 지금의 검문소 역할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복상나무골 [골] 샘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복숭아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빈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빈터골 [골] 가는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태골 [골] 달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간 [마을] 병지방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새로 개척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대간’이라고도 한다.

샘골 [골] 병지방리 하천이 발원하는 지역으로, 샘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골광산 [터] 샘골에 있던 광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금광이 있었다고 한다.

셋밭 [마을] 병지방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을 개척할 당시에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간촌’이라고도 한다.

서낭골 [골] 가래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 [바우] 병지방1,2리의 경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 개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총각바우’, ‘각시바우’라고도 한다.

소학동(巢學洞) [마을] 마을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집들이 마치 학의 둥지처럼 보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뼈골 [골] 뒤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쇠뼈골과 작은쇠뼈골이 있다.

수리바우골 [골] 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수리가 해마다 새끼를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바우골 [골] 떡갈매기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응달설바우골과 양지설바우골이 있다.

신대간(新垔間) [마을] → 새터간

신선바우 [바위] 황장골에 있는 약 30m 높이의 바위로, 신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췌기골 [골] 황장골 아래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어을목(於乙木) [마을] → 늘목

오막재 [고개] 곱돌재 위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옷밥골 [골] 공서울 초입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은 목화가 잘 되어서 그것으로 옷을 해 입고, 또 그것을 팔아서 곡식을 구입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완상골 [골] 복상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 완상골과 작은완상골이 있다.

옴골 [골] 된내미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옴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하동(月下洞) [마을] → 다라골

은전머리 [터] 공서울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태기왕이 이곳에서 세금을 받을 때 은으로 받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태기왕이 이곳에서 머무를 당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푼 지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승골 [마을] 병지방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장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승재 [고개] 불당골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청일면 춘당리와 통한다.

전선애골 [골] 황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정개골 [골] 전선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정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증개골’이라고도 한다.

주막거리 [터] 셋말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증개골 [골] → 정개골

지당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 [골] 곤드레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총각바우 [바위] 선바우의 다른 이름으로, 전설에 의하면, 아랫마을 곱은골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사는 총각이 있었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여 딸을 주려는 집이 없었다. 어느 봄에 화전일을 하다가 윗마을 다락골에 사는 각시를 만났다. 둘은 남의 눈을 피해 날이 어두워지면 삼형제바우 앞의 개울 귀옹소에서 만나 애뜻한 사랑을 나누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기왕의 병사들이 마을로 들어닥쳤다. 태기왕은 공서울 안쪽 병문안에 터를 잡고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니,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 총각은 병사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총각은 병사들을 따라가며 각시에게 전쟁이 끝나면 돌아올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떠나간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각시는 날마다 삼형제바우에 가서 낭군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빌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낭군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다. 여러 날을 통곡으로 지새던 각시는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저승에서 이루자며 사랑하는 님을 따라 귀옹소에 몸을 던졌다. 그러자 총각과 각시가 만나서 오르내렸던 길위 절벽의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길위에 바위가 나란히 생겼는데, 그 바위는 흡사 총각이 각시를 업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터골 [골] 옷밥골 맞은 편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미터간 [터] 다락골 옆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신체의 일부를 남겨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골 [골] 셋말 서낭당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장골 [골] 망태덕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황장목으로 쓰던 소나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정골’이라고도 한다.

황정골 [골] → 황장골

[병지방2리]

곧은골 [마을] 마을로 진입하는 길과 하천의 물이 곧바로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직동’이라고도 한다.

골말 [마을] 떡해 뒤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궁터 [터] 호랑바우골 위에 있는 곳으로, 궁터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귀옹소 [소] 캐캐소 밑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생바우 [바위] 말자국바우에서 약 100m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기생이 춤을 추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거리 [마을] 곧은골과 병지방1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돛골재 [고개] 홍문터에서 홍천군 동면 좌운리로 넘어 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지금은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이 고개에 도둑들이 많았다고 한다.

두루묵이 [골] 석벽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의 형상이 두루뭉실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두루묵이와 작은두루묵이가 있다.

떡해 [마을] 승지골 아래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서 태기왕의 왕명을 받들던 신하들이 정사를 돌보던 곳으로, 글을 쓰기 위하여 떡을 갈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묵해’라고도 한다.

먼골 [골] 곧은골에 있는 골짜기로, 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큰먼골과 작은먼골이 있다.

명매기바우 [바우] 산뒤골 입구 계곡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명매기라는 철새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묵해(墨海) [마을] → 떡해

물안골 [골] 떡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부처바우 [바위] 산뒤골에 있는 바위로, 선바위 방향에서 보면 부처 모양의 바위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뒤골 [마을] 어답산의 뒤쪽에 있던 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엔 1개 반을 이루며 주민이 많이 거주 하였으나, 화전정리 사업의 추진으로 지금은 모두가 이주하여 한 집도 없다. 산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벽골 [골] 곧은골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석벽골과 큰석벽골이 있다.

선녀탕 [소] 명매기바우 옆을 흐르는 계곡의 작은 웅덩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경치가 아름다워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쿠리소 [소] 귀웅소 밑에 있는 소로, 소쿠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젓갈소’라고도 한다.

승지골 [골] 어답산 아래 귀웅소가 있는 골짜기로, 정사를 돌보던 승지들이 거주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심야골 [골] 먼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쓰레밭골 [골] 산뒤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곳은 뱀과 지네가 많다고 한다.

아들바우 [바위] 기생바우에서 약 50m 위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원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바위 밑에서 100일 치성을 하여 아들을 얻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특남한 내용을 그 바위에 써 놓은 흔적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고 하며, 길가던 사람이 이 바위에 있는 틈에 돌을 던져 없으면 특남한다고 한다.

약물탕골 [골] 산뒤골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엄탕소 [소] 곧은골에 있는 소로, 예전에 엄씨 일가가 목욕을 자주 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옹마발자국바우 [바위] 장수발자국바우 옆에 있는 바위로, 말발굽 모양과 비슷한 자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고개 [고개] 전촌리로 통하는 있는 고개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촌리와 경계를 이룬다.

자차골 [마을] 홍문터 위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자차골과 작은자차골이 있다.

잡골 [골] 산뒤골 안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갈래의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수발자국바우 [바위] 자작고개를 오르면서 있는 바위로, 바위에 발자국 모양의 자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재 [고개] 곧은골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병지방1리 늘목과 통한다.

젓말 [마을] 자작고개에 있는 마을로, 고개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 [터] 궁터 위에 있는 곳으로, 절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젓갈소 [소] 소쿠리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젓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좁섬목이 [골] 산뒤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뒤골에서 조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조를 수확해도 골짜기마다 수확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춧골 [골] 당거리에서 병지방1리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골로, 골 입구에 있는 바위가 마치 주춧돌을 엮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미 [마을] 산중턱에 있는 마을로, 중간에 있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직동(直洞) [마을] → 곧은골

캐캐소 [소] 승지골 위 하천의 깊은 웅덩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 이 웅덩이에 어떤 여인이 빠져 죽었는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 이 웅덩이 위에 있는 바위에 한 여자가 머리를 단정하게 빗

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담력이 큰 사람이 큰기침을 하고 침을 한번 뱉자 그 여자가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하여 그 기침소리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캐해소'라고도 한다.

캐해소 [소] → 캐캐소

호랑바우골 [골] 화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호랑이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문터 [마을] 돛골재 밑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홍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홍문터와 작은홍문터가 있다.

화장골 [골] 큰자차골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남긴 시체를 이 골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동리(釜洞里)

가마봉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가마골, 또는 부동(釜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덕고개를 병합하여 부동리라 하였다. 황성댐 건설로 인하여 마을이 대부분 수몰되고, 마지막으로 있던 한 집도 2000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거리로 편입되었다.

가마봉 [산] 산의 정상 부근에 세 개의 바위가 가마솥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 [마을] 마을이 골 막바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고개 [고개] 골말에서 구방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노장고개 [고개] 아랫말에서 중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덕고개 [고개] 부동리에서 삼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부동뜰 [뜰] 부동리에서 가장 큰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약 1,500마지기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아랫말 [마을] 중뜰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던 마을을 가리킨다.

옥담 [터] 아랫말 근처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감옥의 터라 붙여진 이름이다.

장독바우 [바위] 아랫말 앞에 있던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부자가 이

곳에 살았을 때 장독을 놓았는데 그것이 굳어서 생긴 바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뜰 [마을] 부동리 중앙에 있던 마을로, 넓은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꽃대봉 [산] 아랫말 서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부측량 표준기를 꽃았다고 한다.

삼거리(三巨里)

세 갈래 길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삼거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 어염, 홍골을 병합하여 삼거리라 하였다. 2000년 1월 부동리가 편입되었다.

가마바우 [바위] 안말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마치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릿말 [마을] 현재 저수지 주위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고사리골 [골] 홍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웁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소 구유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점골 [골] 어염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사금을 많이 채취하여 금점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평골 [골] 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낙시대바우 [바위] 어담산 좌측으로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천지개벽 때 이 바위에서 낙시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개 [고개] 저수지에서 부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덥고개’라고도 한다.

덥고개 [고개] → 덕고개

도둑골 [골] 어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도둑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막 [마을] 어답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태기왕이 있는 곳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막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동학군의 움막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뒷말림 [터] 안말 뒤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이곳에서 웅기를 구웠다고 한다.

마무리골 [골] 골짜기가 포동리 마무리에서 동막까지 이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동막골과 어염골이 이 골안에 있다.

문맥이 [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나무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득치재 [고개] 동막에서 병지방2리 산뿔골로 넘나드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마치 비둘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 사람들이 고개를 통하여 갑천을 넘나들었다.

사냥봉 [산] 안말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에서 매사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골탕골 [골] 어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한약재인 산골이 많이 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삼굿나들이 [터] 백운기도원을 지나 절터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곳에서 삼을 가공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형제고개 [고개] → 세고개

서당똥지 [터] 안말 느티나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 [바위] 마을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동리와 삼거리 사람들은 선바우라고 하지만, 부동리, 중금리, 화전리 사람들은 섬을 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섬바우, 포동리 사람들은 독(항아리)처럼 생겼다고 독바우라고 한다.

세고개 [고개] 삼거리에서 울동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 세 개가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형제고개’라고도 한다.

원다래이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논 한 마지기가 원 다랭이로 갈라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논 주인이 일을 하다보니 한 다랭이가 보이질 않았다. 논 주인이 깜짝 놀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이상히 여겨 벗어 놓았던 갓을 들어보니 그 밑에 한 다랭이가 있었다 한다.

식염골 [골]-비독치재 옆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먹는 소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거릿말의 안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600백년 된 느티나무와 마을회관이 있다. 이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는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 3년 동안 나뭇잎이 나지 않았으며, 6.25 때는 나무가 반으로 잘리는 등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약물탕 [샘] 낚시대바우 밑에 있는 샘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암절벽에서 약숫물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정한 사람이 올라오면 실뱀이 나타난다고 한다.

어답산 [산] 마을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기왕이 이 산을 밟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염골 [마을] 동막 위쪽에 있는 마을로, ①예전에 태기왕이 군사들이 먹을 소금을 저장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②임금을 호위하던 군사나 직속 군사들이 주둔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골 [골] 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승거리 [터] 진퍼리골과 배나무골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장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 [터] 사냥봉 밑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말엽까지 탑이 있었으나, 1940년대 소실되었다고 한다.

지르마봉 [산] 안말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질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칠바우 [바위] 큰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다. 이 바위에 발자국이 있는 부분은 땅에 묻혀 있다고 한다. 이 바위에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개가 이곳에서 나와 대관대리로 갔다고 한다. 그 연유로 해서 대관대리를 개나리라고 한다.

진퍼리골 [골] 홍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늪이 있어 골이 짙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충충골 [골] 선바위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에 나무들이 많아 어둡침침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쟁이 [골] 예전 태기왕 이곳에 군사를 이끌고 주둔 시에 무기와 식량 및 각종 물자를 저장하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바우 [바위] 안말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골 [골]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대리(上臺里)

금대(琴臺) 위쪽이 되므로 옷금대, 상금대(上琴臺)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너븐골, 느릅재, 버덩말, 웅골, 텃골을 병합하여 상금대리(上琴臺里)라 하다가, 줄이어 상대리라 하였다.

감투바우골 [골] 차들꼭지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마치 감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거성바우골 [골] 웅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호랑이가 상복을 입은 상주를 해치고 건 말 바위에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두 [마을] 상대리와 하대리를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①웅골에서 태어난 장수가 사용할 검이 나온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살인 사건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골 [마을] 상대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 안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곰숨은골 [골] → 곰신골

곰신골 [골] 느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곰이 겨울잠을 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곰숨은골’이라고도 한다.

기곡(基谷) [마을] → 텃골

꼬부랑재 [고개] 대골 위에 있는 고개로, 고갯길이 꼬불꼬불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둔내면 둔방내리 넘은골과 통한다.

너래바우 [바위] 상대리 초입 냇가에 있는 넓은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 마고할멈가 빨래를 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나뭇꾼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내려오는데, 너래바우 옆 길가에 있던 선바우에서 건너편에 있는 산의 바위에까지 칠평굴로 된 줄이 길게 매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했거니 생각하였으나 달빛이 밝은 밤이면 빨래가 널려 있어서 가까이 가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칠평굴 줄만 매어져 있었다. 이렇듯 달밤에

멀리서 보면 빨래를 널려있던 것이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장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고할멈의 짓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널래바우에는 마구할멈의 발자국, 버선을 벗어 놓았던 자국이 있으며, 빗물이 바위에 고이면 미역국을 쏜 자국과 빨래줄 그림자와 같이 생각되는 선이 나타난다.

논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느릅재 [고개] 옷말 위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큰 느릅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목골 [골] 사시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둔내면 현천리와 통한다.

달통재 [고개] 버덩말에서 방개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봄철에 달래와 봄나물이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뒤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서낭당 뒤에 위치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서낭당이 없다.

대골 [골] 곰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산죽이 자생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자미골 [골] 웅골 초입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의병장의 시신을 묻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대장미골’이라고도 한다.

대장미골 [골] → 대자미골

덧재 [고개] 논골에서 청일면 갑천리와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물들을 포획하기 위하여 덧을 놓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상봉 [산] → 마생봉

마생봉(馬生峰) [산]- 웅골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마가 태어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상봉’이라고도 한다.

마암리재 [고개] 감투바우골 맞은 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마암리와 통하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미야골 [골] 중사른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바랑골 [골] 중사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중을 해치고 중의 바랑만 남겨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개골 [골] 움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골에서 빗살무늬 기왓장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배호묘 [터] 텃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 어떤 사람이 묘를 썼으나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기에 다른 곳으로 묘를 이장하였는데, 이후 그 자리에

배씨가 묘를 썼는데 호랑이도 나타나지 않고 집안도 번성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 [마을] 상대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상대리의 중심 지점에 위치해 있다. 다른 마을에 비하여 지형이 넓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이라고도 한다.

범바우골 [골] 분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골에서 예전에 호랑이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바우골 [골] 웅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복덕재 [고개]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분터골 [골] 웃말 솔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람죽은골 [골] 느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금실 좋은 부부가 이 골에서 살다가 남편이 지병으로 죽자 그리움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래골 [골] 설통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사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촌(上村) [마을] → 웃말

삼밭골 [골] 숯가마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삼밭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보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락동재 [고개] 느목골 옆에 있는 고개로, 현천리 선락동과 통하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골 [골] 느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떨어진바우 [바위] 느릅재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소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죽은골 [골] 웃말 솔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로, 풀을 먹이기 위해 매어두었던 소가 밧줄에 감기어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솔고개 [고개] 웅골에 있는 고개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고개 [고개] 웃말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논과 밭으로 변해져 있다.

쇠돌봉 [산] 사시래골 위에 있는 산으로, 이 산에서 쇠를 연마하는 돌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숯가마골 [골] 웃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숯을 구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옹골 [마을] 상대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상대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와둔지 [골] 소죽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기와를 굽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옴터골 [골] 옴말에 있는 골짜기로, 6.25 때 이 골에서 옴집을 짓고 난을 피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상대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촌’이라고도 한다.

응달옹골 [마을] 상대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옹골 [마을] 상대리 1반에 속하는 마을이다. 전설에 의하면, 살림이 넉넉한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총명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 주위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그 아이는 유년시절 마생봉에서 야생의 망아지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며 말과 함께 성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던 중에 하대리 말구리에서 말이 굴러 함께 생을 마감하였다. 그 이후 큰 인물이 될 그의 짧은 생을 기리는 뜻에서 옹골이라고 했다 한다.

점고개 [고개] 옹골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고개 부근에 옹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둔내면 궁중리와 통한다.

조과부터 [터] 버덩말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조씨 성을 가진 과부가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과부는 농사와 더불어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대리를 지나는 사람이면 조과부가 운영하는 주막에서 모두들 쉬어 갔다고 한다. 그러한 까닭에 조과부는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씨를 천석을 뿌렸다’, ‘이 마을의 대부분의 땅은 조과부 땅이 었다’, ‘훗날을 위해 조과부가 금과 은을 묻었다’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텃골에 가면 그의 조상의 산소를 치산한 석물을 보면 그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후손은 만주로 이주하였다는 얘기도 있다.

주안리골 [골] 소죽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중사른골 [골] 옹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중이 죽으면 화장을 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 [골] 뱀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들곡지 [골] 주안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차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 [마을] 상대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묘자리, 집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

다. 이 곳에서 상대리의 1번지를 시작하여 토지측량이 이루어졌다. ‘기곡’이라고도 한다.

평촌(坪村) [마을] → 버덩말

율동리(栗洞里)

원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1973년 갑촌면에 편입되었다. 밤나무가 많으므로 밤골, 또는 율동(栗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거리, 창말을 병합하여 율동리라 하였다.

골말 [골] 세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구릿봉 [산] 세거리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구렁이가 이 산에 올라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구리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장골 [골] 배나무골을 올라가며 좌측에 있는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당치성골 [골] 반장골 위에 있는 작은배나무골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마을에서 작은배나무골로 통한다.

되롱골 [골] 산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괘수 [골] 세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말굽이등 [산] 작은배나무골 막바지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굽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마가 많이 난다고 한다.

명막바우 [바위] 노장골 막바지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반장골 [골] 노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밤골 [마을] 율동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치골 [골] 창말 앞 개울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나무골 [골] 밤골에 있는 큰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배나무골과 큰배나무골이 있다.

벼락바우 닷마지기 [들] 방치골 앞에 있는 논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섯 마지기 논에 벼락맞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인돌로 추측된다.

병지방골 [골] 큰배나무골에서 병지방으로 통하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재 [고개] 큰배나무골에서 병지방으로 통하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임도가 있다.

보리밭골 [골] 산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큰 보리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득치재 [고개] 큰배나무골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병지방과 통하는 지름길이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산구골 [골] 배나무골을 올라가며 우측에 있는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삼거리재 [고개] → 삼형제고개

삼형제고개 [고개] 세거리에서 전촌리로 향하는 길에 고개가 세 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삼거리재’라고도 한다.

설통골 [골] 보리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통을 많이 설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거리 [마을] 울동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갑천면 삼거리와 청일면 소재지로 가는 세 갈래 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울동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세거리에서 응달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진도롱골 [골] 되롱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박골 [골] 창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창둔짓들 [들] 양짓말과 세거리 사이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창말 [마을] 울동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관곡을 쌓아 두었던 창고가 있던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촌’이라고도 한다. 한때는 ‘창봉’, ‘신부창’이라고도 불렀다.

창촌(倉村) [마을] → 창말

청소 [소] 창말 앞 내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엔 깊었다고 한다. 그 유래는 모른다. 마을 분들은 보통 ‘청수’라고 발음한다. 소 뒤쪽으로 오래된 비석이 있는데 새긴 글이 흐려서 알아보기 힘들다.

청수머리바우 [바위] 청소 옆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큰골 [골] 세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터뒹봉 [골] 설통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호랑이바우 [바우] 반장골과 큰배나무골 사이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이 바위에서 새끼를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마을에 사는 여자가 이곳으로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가져왔는데, 그날 밤 어미호랑이가 울어서 그 새끼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전촌리(筓村里)

원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1973년 갑천면에 편입되었다. ①예전에 옹기점이 있어서 점촌이라 하던 것인데, 그 이름이 좋지 않다 하여 전촌으로 고쳤다. ②전장군의 명성과 관련이 있는 동네로 전장군의 마을, 과거 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전촌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곳집구렁, 다락골, 도화목, 동가래터, 승방, 시옥골, 오태비, 진양지를 병합하여 전촌리라 하였다.

가마바우 [바위] 어답산 아랫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 모양이 마치 가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정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응달쪽에 있는 관계로 어두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석배기 [터] 진양지 앞 논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 형상의 바위가 있는 자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곳집골 [골] 안말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부터 상여를 보관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구비 [골] 도화목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이 굽이쳐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어택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박솔 [골] 도화동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화목 [골] 병지방으로 가며 초입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도화암(桃花菴)이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목재 [고개] 병지방 2리로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답산을 옆으로 하여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가래터 [마을] 전촌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추동리 가래울에서 볼 때 이 곳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깃들 [들] 안말에서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둔덕배기의 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뒷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뽕바우 [바위] 옛날 장수가 무예를 연마하던 바위로, 이 바위에서 추동리 당평들까지 뛰어내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문막이 [골] 돌목재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태기왕이 어답산에 있을 때 병사들이 이 골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문막이와 작은문막이가 있다.

밤나무골 [골] 어택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엉바우 [바위] 안흥산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바위틈 절벽에 부엉이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붉은덕고개 [고개] 안말에서 동가래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붉은 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밭소 [소] 전촌리와 추동리 경계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沼) 모양이 국사밭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군리고개 [고개] 도화동에서 공근면 부창리 삼군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서정들 [터] 진양지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당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솔고개 [고개] 추동리에서 병지방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반뜰 [뜰] 병지방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 논이 몰사밭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승방 [터] 도화목 입구 왼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암자가 있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시옥골 [골] 안흥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봉굽이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병지방계곡과 삼거리 저수지 물이 합수되는 지점에서 신봉산 아래 물이 굽이도는 현상을 이르는 것이다.

안말 [마을] 전촌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의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얼마 전 간이상수도 매설 작업을 할 때 밭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과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안흥산 [산] 병지방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산 정상에 올라서면 멀리 안흥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상에 측량기점을 표시하는 쫓대(뿔대)가 있어 ‘뿔대봉’이라고도 한다.

어답이 [마을] → 어택이

어택이 [마을] 전촌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옛날 태기왕이 이곳 땅을 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답이’라고도 한다.

얼음골 [샘] → 참샘내기

여내재 [고개] 도화동에서 공근면 상동리와 경계인 홍천군 동면의 여내골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청둥오리가 많이 서식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두렁 [터] 진양지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아릅드리 오리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경지정리를 하여 들로 변했다.

와뚝지 [마을] 전촌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기와를 굽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왜뚝지’라고도 한다.

왜뚝지 [마을] → 와뚝지

우물뚝지 [터] 뒷골 옆 부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커다란 우물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재상머리 [골] 어택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임금이 떠나갈 때 이곳에서 재상들이 배웅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나무구렁이 [터] 안말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전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장군묘 [터] 전촌리의 지명유래와 관련 있는 주인공의 묘로 그 이름은 알 수

없다. 전설에 의하면, 전장군은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어느 날 한 힘센 장사가 전장군의 소문을 듣고 한번 힘을 겨루어 보려고 전촌리에 왔는데, 마침 두 마리의 겨리소로 논을 갈고 있는 전장군에게 길을 물었다. “여기 전장군의 집이 어디오” 하니, 일에 열중이던 전장군은 쳐다보지도 않고 연장과 함께 겨리소를 번쩍 들어서 “저기오” 하고 전장군의 집을 가리키니, 그 장수가 “아 이분이 전장군이구나” 하면서 놀라 꿈무늬를 뺏다고 한다.

진양지 [마을] 전촌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해가 하루종일 길게 드는 양지 바른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샘내기 [샘] 솔고개 너머 병지방으로 가는 길 옆, 안흥산 밑에 있는 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뉴월에도 얼음이 얼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음을 먹곤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얼음골’이라고도 한다.

큰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꽃대봉 [산] → 안흥산

중금리(中金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문동, 군량골, 마당재, 오삼대를 병합하여 중금리라 하였다. 횡성댐으로 인하여 마을은 거의 다 수몰되고, 현재는 마당재 짝바우 등 일부만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 사금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문피 [산] 속섬 앞에 있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6.25 때 이곳에서 전투가 치열했다고 한다.

구만리들 [들] 탑둔지 동쪽에 있던 넓은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군량골 [마을] 중금리 2반에 속했던 마을로, 예전 화전현(花田縣)이 있을 때 화전리(花田里)에 그 치소(治所)가 있었고, 이 곳에는 군량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쟁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논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머루 [고개] 아랫말 북쪽 돌아가는 굽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앞 계천에 세모바위가 있고 건너편 골짜기가 산소골이다.

대문동(大門洞) [마을] → 대문안골

대문안골 [마을] 숲밖에 동북쪽으로 있던 마을로, 예전에 진양(陳央)이라는 부자가 큰 대문을 세우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문동이라고도 한다.

대치(大峙) [고개] → 한치고개

돌서낭 [바위] 숲밖 끝머리에 있던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바위를 숭상해서 붙여진 이다.

둔텃골 [골] 예전에 군대 주둔지가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뒗골 [골] 중금교회 좌측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재 [마을] 한치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 위에 마을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현’이라고도 한다.

매봉 [산] 쟁골 초입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매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릿고개 [고개] 아랫말에서 대관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던 것으로, 이 고개 밑에 골을 뚫어서 계천물을 대관대리 들에 물을 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고개’, ‘수현’이라고도 한다.

무당바우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무당이 곳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고개 [고개] → 무릿고개

불당골 [골] 예전에 암자가 있던 자리로, 큰 불당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빈골 [골] 탐둔지 맞은 편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탐둔지 절에 부속된 암자가 있었다는 절골과 맞닿아 있다. 그 너머에 방학골이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빙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는 것으로, 응달쪽에 위치한 관계로 눈이 늦게까지 쌓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삼밭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새삼이라는 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지골 [골] 대문동 너머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등애골 [골] 쟁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소 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재와 통한다.

수현(水峴) [고개] → 무릿고개

숲밖 [마을] 중금리 3반에 속했던 마을로, 숲이 울창하여 군량골에서 보면은 숲밖의 마을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쌍암(雙岩) [바위] → 짝바우

아랫말 [마을] 중금리 1반에 속했던 마을로, 마을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아치재 [고개] 마당재에서 옥동리로 가면서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고개가 두 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양한치재’라고도 한다.

양한치재 [고개] → 양아치재

양짓말 [마을] 중금리 1반에 속했던 마을로, 능머루 우측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지빨 [산] 탑둔지 앞에 있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세가 험하고 해가 일찍 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계천이 휘돌아가는 중간에 매 형상을 한 바위가 있다.

장현(場峴) [마을] → 마당재

쟁골 [골] 군량골 끝머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제비집골 [골] 쟁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짝바우 [마을] 중금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쌍암’이라고도 한다.

탑둔지 [마을] 통일신라 때 절터로 추정되는 곳에 2개의 3층석탑이 있어서 붙여진 마을명으로, 수몰로 인하여 현재 이 탑은 구방1리 망향의 동산으로 옮겨져 있다.

덧골 [골] 군량골 우측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음지빨로 넘어가는 덕고개가 있다. ‘토골’이라고도 한다.

토골 [골] → 덧골

한치고개 [고개] 중금리에서 옥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응달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고개가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치’라고도 한다.

추동리(秋洞里)

원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1973년에 갑천면으로 편입되었다. 마을에 가래나무가 많으므로 가래울, 가래곡, 또는 추동(楸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도화목, 염수골, 당평을 병합하여 추동리라 하였다. 한편 한자로는 ‘楸’가 아닌 ‘秋’로 표기하는데, 이는 황성읍 ‘추동리(楸洞里)’가 ‘楸’자를 쓰는 까닭에 표기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래울 [마을]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가래울과 작은가래울이 있다.

거릿말 [마을]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었고 거리가 형성되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곤들봉 [산] 염수골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말 [골] 추동출장소가 있던 자리의 뒤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가리킨다.

늦은목이 [골] 양지다랭이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산에 나무를 해 가지고 오다가 이 곳에서 쉬곤 했다고 한다.

닥밭골 [골] 둘째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닥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버덩 [마을] 당평초등학교 부근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평’이라고도 한다.

당산 [산] 당버덩 앞 도로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던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당평(堂坪) [마을] → 당버덩

더랭이골 [골] 아홉다래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롱뇽이 많다고 한다.

도화목 [마을] 염수골 동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봉숭아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동화목이’라고 발음한다.

동화목이 [마을] → 도화목

둔짓말 [터]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추동리 느티나무가 있는 언덕배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둘째골 [골] 움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움무골과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골 [골] 염수골 안 우측으로 마지막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멧돼지를 많이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띠발골 [골] 횃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띠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미 [터] 대관대리 경계부근에 있는 강아소쪽의 논에 말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메나발골 [골] → 면화발골

면화발골[골] 띠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면화를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메나발골’이라고도 한다.

목내미 [골] 큰버드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근면 삼배리로 넘어가는 목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버드나무골 [골] 진서덕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버드나무골과 큰버드나무골이 있다.

복상나무골 [골] 염수골로 접어 들며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재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나발골 [골] 더랭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길다고 한다.

새대기 [산] 작은 가래울에 있는 산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설통골 [골] 가래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벌을 많이 치던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수반뜰 [뜰] 말미가 있는 지역의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 농지정리를 하던 논이 형태가 낮고 물사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채골 [골] 도화목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논에 물을 대는 수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중방바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홉다래이골 [골] 주치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홉 다래이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다랭이 [골] 최좌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논다랭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내고개 [고개] 중방바우 우측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공근면과 통한다.

염소골 [마을] 예전에 염소가 산에서 내려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염수골’이라고도 한다.

염수골 [마을] 예전에 산에서 잔물이 흘러 내려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염소골’이라고도 한다.

우무골 [골] 염수골 초입 좌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우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나온다.

움무골 [골] 수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개나리 [마을] 추동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나리(대관대리)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다랭이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응달쪽에 논다랭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봉 [산] 가래울과 공근면 삼배리 궁터와 연결되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을 오가는 소로길이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염수골 [골] 우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염수골이 이어지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피골 [골] 큰가래울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주치재골 [골] 메나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주치재골과 큰주치재골이 있다.

중방바우 [바위] 도화목 초입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바위가 가운데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작은염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진골과 큰진골이 있다.

지피골 [골] 여내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서덕 [골] 큰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나무가 많다고 한다.

청명산 [산] 자세봉의 동쪽에 있으며 추동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최좌수골 [골] 큰가래울 우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최좌수라는 분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신배나무골 [골] 신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배나무골보다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근면 삼배리와 통한다.

횃골 [골] 복상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서 백회를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포동리(浦洞里)

계천(桂川)가 마을이 있으므로 개말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동평(下銅坪), 부영바우, 마무리, 고래골을 병합하여 포동리라 하였다. 횡성댐 상류지역에 해당되며 저고리골, 마무리 일부 마을이 수몰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포동1리]

가는골 [골] 작은석곶이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골 [골] 논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년골 [마을] 포동1리 부영바우와 저고리골 사이에 있던 마을로, 두 마을을 왕래하려면 이곳을 건너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윗건년골과 작은건년골이 있다.

계천(桂川) [내] 마을 앞으로 흐르는 내를 가리킨다.

고래고개 [고개] 고래골에서 우천면 정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정금리에서는 고락고개라 한다.

고래골 [마을] 정금리와 접해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래처럼 길게 뻗어 있는 골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해바우 [바우] 고개넘이 앞 계천가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 성인 3,4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굴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금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석골 [골] 가는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고래골에 있는 골짜기로, 고래고개에서 고래골로 내려오며 오른쪽 첫 번째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천수답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무리 [마을] ①계천의 물이 남쪽으로 돌았으므로 마물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마무리 또는 무촌이라 하였다. ②구리봉에서 출현한 구렁이가 용트림을 하면서 기어 내려오다 이 곳에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정금리에서 긴 고래골을 지나오면 이 곳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물 [마을] → 마무리

망대골 [골] 구석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무촌(茂村) [마을] → 마무리

모자기 [마을] → 모재기

모재기 [마을] 마무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모자기’라고도 한다.

반상골 [골] 갈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석곶이 [골] 고래골에 있는 골짜기로, 고래고개에서 고래골로 오면서 왼쪽 첫 번째 골을 가리킨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석곶이와 작은석곶이가 있다.

저고리골 [골] 지금은 황성댐 건설로 인하여 단 한집도 없는 골짜기로, ①옛날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고 저고리만 남겨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외지에서 온 갈꾼들이 일하러 왔다가 저고리만 벗어 놓고 몰래 숨어서 노름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에는 태기왕이 휴양터로 이용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 당시 쌓았다는 성터와 축조 연대를 알 수 없는 탑이 남아 있다.

조가지골 [골] 망덕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지르넘이 [고개] 마무리에서 정금리로 가는 지름길로, 이 고개로 넘어가면 고래골로 가는 것보다 무척 가까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포동2리]

가래나무골 [골] 부엉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들바우 [바위] 하동평 주유소 앞에서 다리 좌측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노적바우’라고도 한다.

고개넘이 [마을] 아랫장터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리고개 너머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리고개 [고개] 아랫장터에서 구방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이가 이 고개를 지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뱃마루장등’이라고도 한다.

구릿들 [들] 아랫장터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이가 지나간 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가래질을 하기 위해 물길을 냈려고 하는데 서로간의 이권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았다. 그때 매일2리쪽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계천을 건너 아랫장터를 지나 논밭으로 기어가서는 구리고개를 넘어 구릿봉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구렁이가 지나간 자리에 왕겨를 뿌려 놓고 물길을 내니 논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 구렁이가 지나간 들판을 구리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구리봉 [산] 구리고래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이가 이 산을 올라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적바우 [바위] 바위가 노적가리를 쌓은 것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들바우’라고도 한다.

둘째건넌골 [골] → 둘째골

둘째골 [골] 첫째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엉이골에서 두번째 있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둘째건넌골’이라고도 한다.

뒤골 [골] 참샘물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랫장터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뱃마루장등 [고개] 구리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배가 이 고개를 넘나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엉바우 [마을] 마을 뒤에 부엉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휴암’이라고도 한다.

부엉바우골 [골] 부엉바우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빙굽이 [고개] 아랫장터에서 마무리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전에 이 고개 길이 깎아지른 낭떨어지기로 그 아래는 깊은 물이 굽이쳐 흘렀는데, 이 곳이 웅달로 겨울에는 늘 빙판길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생이골 [골] 구리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랫장터 [마을] 갑천시장 아랫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하동평’이라고도 한다.

참샘물 [샘] 아랫장터 건너에 있는 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여름에 마시면 입속이 얼얼할 정도로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 샘물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엔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한 집도 없다.

첫째건넌골 [골] → 첫째골

첫째골 [골] 부엉바우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첫번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첫째건넌골’이라고도 한다.

하동평 [마을] → 아랫장터

할미소 [소] 마을 앞 내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소에 할머니가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할애비소 보다 더 깊다.

할애비소 [소] 할미소 위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휴암 [마을] → 부엉바우

하대리(下臺里)

금대(琴臺)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금대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아홉사리, 다심이, 너부니, 말구리, 새골을 병합하여 하금대리(下琴臺里)라 하다가 줄여서 하대리라 하였다.

[하대1리]

곤드레골 [골] 웃너부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곤드레 나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천면 정금리 대숲과 통한다.

광분(廣分) [마을] →너부니

구방터 [터] 영광교회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구석모퉁이 [터] 대촌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구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부니 [마을] 하대1리 웃너부니와 하대2리 아랫너부니를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지형이 넓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분’이라고도 한다.

늑대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촌(大村) [마을] → 큰마을

말림넘이 [고개] 대촌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매일재 [고개] 하대1리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매일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리에서는 ‘검두고개’ 또는 ‘빨딱고개’라 한다.

물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물골재 [고개] 대촌에서 청일면 갑천리와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골에 있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주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독봉 [산] 소구니재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구니재 [고개] 대촌에서 청일면 유평리 소구니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지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양지모퉁이 [터] 대촌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너부니 [마을] 하대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너부니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래골 [골] 웃너부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마을 [마을] 하대1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촌’이라고도 한다.

하검두 [마을] 하대1,2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검두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대2리]

거릿말 [마을] 다심이에 속하는 마을로, 큰길가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라고도 한다.

다심이 [마을] 하대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삼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댕댕이재 [고개] 말구리에서 새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버무개’라고도 한다.

말구리 [마을] 하대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길이 험해서 말이 흔히 굴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벼슬아치가 타고 가던 말이 이곳에서 굴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말구리재 [고개] 말구리에서 상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버무개 [고개] 땡땡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태골 [골] 아랫너부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골 [마을] 하대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둔지 [터] 다심이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은 밭으로 변해 있지만 예전에 마을이 있을 때, 그 마을이 나중에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너부니 [마을] 하대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너부니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홉사리 [마을] 하대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로 내려오는 물굽이가 아홉 굽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다심이에 있는 마을로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 뒤를 가리킨다.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골 [골] 아랫너부니에 있는 골짜기로, 옷이 울랐을 때 먹으면 낫는 약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터] 다심이에 있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다심이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넓고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 절이 있었다고 한다.

꽃대봉 [산] 다심이에 있는 산으로, 산 정상에 꽃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 뒤에 있다.

화전리(花田里)

횡성군의 옛 고을인 화전현(花田縣)이 있었는데, 조선조 때 갑천면 화전(花田)이 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큰골, 버덩말, 당두루를 병합하여 화전리라 하였다. 횡성댐으로 인하여 1반에 속하던 땅두루와, 2반에 속하던 큰말, 버덩말, 옷말 등이 모두 수몰되고 고지대에 있는 감사버덩의 두 가구만이 남게 되었다. 현재는 큰골 고지대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다.

감사고개 [고개] 동헌터 뒤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 관청이 있을 때 감사가 방문하고 고개를 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감사골 [마을] 감사고개 초입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감사버덩이라고도 한다.

감사버덩 [마을] → 감사골

곧은골 [골] 큰골 옆 무명용사 위령탑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헌터 [터] 예전 횡성군의 옛 고을인 화전현이었을 때 동헌터가 있던 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현터’라고도 한다. 1974년 농경지 정리 때 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망두루 [마을]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망봉산 [산] 화전리와 구방리 사이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는 두 마을 사람들이 이 산에서 헛불싸움을 했다고 한다.

버덩말 [마을] 화전리에서 가장 넓은 들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다른 마을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말 [마을] 화전리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마을] 화전리 초입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강성균, 남, 63세, 양양 태생으로 12세에 구방1리로 이주)

(정운태, 남, 73세, 청일 태생으로 23년 전에 구방2리로 이주)

(유진철, 남, 70세, 둔내 태생으로 69년 전에 구방2리로 이주)

(김문영, 남, 72세, 대관대리 토박이)

(정연상, 남, 81세, 대관대리 토박이)

(김응수, 남, 81세, 대관대리 토박이)

(최창주, 남, 70세, 평남 태생으로 56년 전에 대관대리로 이주)

(최병하, 남, 73세, 매일1리 토박이)

(조병기, 남, 68세, 하대리 태생으로 9년 전에 매일1리로 이주)

(박영진, 남, 68세, 원주 태생으로 61년 전에 매일1리로 이주)

(조성년, 남, 57세, 고시리 태생으로 1971년에 매일1리로 이주)

(조두현, 남, 70세, 원주 태생으로 40년 전에 매일1리로 이주)

(이도원, 남, 74세, 매일2리 토박이)
(유 주, 남, 58세, 매일3리 토박이)
(정순화, 남, 77세, 병지방1리 토박이)
(이덕주, 남, 78세, 평남 태생으로 54년 전에 병지방1리로 이주)
(강정숙, 여, 58세, 춘당리 태생으로 40년 전에 병지방1리로 시집 옴)
(김봉준, 남, 74세, 충청도 태생으로 65년 전에 병지방1리로 이주)
(박종윤, 남, 65세, 병지방2리 토박이)
(정병태, 남, 67세, 병지방2리 토박이)
(남일희, 남, 74세, 삼거리 토박이)
(이성하, 남, 67세, 토박이)
(김광기, 남, 44세, 둔내 태생으로 33년 전에 상대리로 이주)
(김성규, 남, 46세, 상대리 토박이)
(배종근, 남, 63세, 율동리 토박이)
(김정범, 남, 49세, 율동리 토박이)
(서홍범, 남, 55세, 율동리 토박이)
(류기창, 남, 65세, 전촌리 토박이)
(이순연, 남, 63세, 중금리 토박이)
(양재홍, 남, 62세, 중금리 토박이)
(곽영범, 남, 61세, 대관대리 태생으로 35년 전에 추동리로 이주)
(이동직, 남, 68세, 추동리, 토박이)
(신대승, 남, 67세, 추동리 토박이)
(최상봉, 남, 70세, 삼거리 태생으로 40년 전에 추동리로 이주)
(이순섭, 여, 67세, 추동리 토박이)
(정연철, 여, 65세, 공근 태생으로 40년 전에 추동리로 이주)
(이명수, 남, 52세, 포동1리 토박이)
(이찬빈, 남, 77세, 평남 태생으로 60년 전에 포동1리로 이주)
(정봉규, 남, 54세, 포동1리 토박이)
(남봉현, 남, 66세, 포동2리 토박이)
(함동호, 남, 63세, 평창 태생으로 20년 전에 하대1리로 이주)
(길병문, 남, 63세, 평창 태생으로 60년 전에 하대1리로 이주)
(김홍섭, 남, 55세, 하대1리 토박이)
(이해영, 남, 56세, 하대2리 토박이)
(이민호, 남, 67세, 하대2리 토박이)
(한기용, 남, 51세, 갑천면 매일리 태생으로 8년 전에 화전리로 이주)